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화재 예방 활동 기대



이 명 응
〈내무부 소방국 안전계장〉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중으로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심층화는 물론 전기, 유류, 가스, 화공약품 등의 사용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화재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방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소방 행정 수요를 양적, 질적으로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 같이 급증하는 소방 행정 수요 변동에 따른 대응 능력과 닥쳐올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소방 행정 체제 변혁과 관리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소방의 역할도 화재 예방과 진압 등 소극적 공공질서 유지 위주의 행정에서 구급, 구난, 구조 및 각종 재해의 제거 등 적극적인 복리 증진의 봉사 행정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행정 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소방 행정의 기능은 크게 예방

소방과 진압 소방으로 구별할 수 있다. 예방 소방은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의 강구 또는 개선 유도 등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행정이다. 반면 진압 소방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 한도로 경감시키기 위한 소방 작전을 신속하고도 완전하게 전개하는 사후 행정 조치로서 보다 과감한 행동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소방 행정의 1차 목표는 화재 예방에 두고 각종 소방 장비의 설치, 유지에 대한 점검과 기술지도, 화재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 홍보, 계몽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화기취급의 부주의, 인화성·발화성 높은 물질의 관리 불량, 전기 시설의 방치, 기 설치된 소방 설비의 적절치 못한 유지 관리로 인한 고장 상태의 방치, 연소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의 미강구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지도, 계몽해야 할 많은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다.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신상품의 개발, 새로운 업종의 출현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요인의 증가를 불러왔다.

높아진 위험도와 위험성의 다양화에 대비하는 대책으로는 보다 전문화 되고, 다양한 점검 기능과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된다. 강력한 행정력의 발동, 신기술로 무장된 점검 기술, 적절한 홍보

활동과 교육, 변화된 기술에 걸맞은 보다 발전된 안전 기준이나 개선 방안의 제시, 선진 외국의 앞선 소방 기술 도입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이에 발맞추어 화재 진압 역시 새로운 위험물의 범람에 대비한 보다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소화 방법, 진압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게 됐다.

예전에 없던 화공약품등의 화재시는 의외의 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크고 작은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사소한 문제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국민 각자가 자기 주변의 사소한 화재 발생 요인부터 없애는 등 주의를 기울인다면 아마도 화재발생은 상당히 줄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1973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설립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7대 도시에 소재한 4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은 소방관계자는 물론 전국민들로 하여금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아울러 관심을 제고시켰다는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였다. 이번에 울산, 부천, 성남, 수원 등 인구50만 이상 도시가 추가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 성과를 예측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소방에서 진압보다 예방 측면에 정책의 비중이 더해지고 있는 것도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화재가 발생되면 피해가 반드시 따른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의 출발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적극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안전점검은 전제적인 국가소방력의 급격한 향상을 불러왔다.

신규직원 채용시부터 가능한 한 전기, 기계, 화공, 건축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실무 교육을 실

시케 함으로써 소방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자율 점검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방 시설 관리사 제도를 도입, 건축주로 하여금 자기 재산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안전 의식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소방용 기계·기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검정 기술 기준을 내무부령에서 고시로 전환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정 기관의 위상 정립을 위해 각종 첨단 장비의 보강과 기구를 확장하는

등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켰으며, 전 국민의 소방 요원화를 위하여 불조심 소방 안전 수칙을 제작, 배포하는 등 소방 홍보를 강화했다. 날로 복잡 다난해져가는 소방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였다.

이제 보험 시장이 개방되고 국민의 자율 의식이 높아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도 지금보다 한차원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다 더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소화 설비에 대한 개선 유도책으로 우량 소화 시설에 대하여는 좀 더 많은 보험료의 할인 혜택을 주고, 시설의 개량을 요하는 특수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화 설비 개량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소화 설비 개선에 나섬은 물론, 법령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던 종래의 건축·시설주들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각고의 노력으로, 차원을 달리 하는 전문성이 더한층 강화된 점검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재 관련 자료의 발간을 통해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대국민 홍보 전개 등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가오는 지방화, 자율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안전 점검 업무를 기대한다. ☉

